

奇經八脈과 八脈八會穴에 관한 研究

李起成* · 尹鍾和**

I. 緒論

人體를 循環하는 脈은 常脈, 奇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¹⁾ 陰陽表裏關係에 의한 十二經脈과 十五絡脈의 流注가 멈추지 않은 脈을 常脈이라 하고²⁾, 陰陽表裏配合과는 關係없이 別途奇行하면서 十二正經의 拘碍를 받지않는³⁾ 督脈, 任脈, 衝脈, 帶脈, 陰·陽維脈, 陰·陽蹻脈의 奇經八脈을 奇脈이라 한다.

奇經은 正經의 脈氣가 充盈하면 奇經으로 流入하고, 虧少하면 十二經을 資助하므로⁴⁾ 이를 奇經과 正經은 “轉相灌注”한다하여 正經을 溝渠, 奇經을 湖澤에 比喩하였고⁵⁾, 奇經의 病은 個生하지 않고 諸經의 病이 流入되어 溢出하므로⁶⁾ 傳經이나 循周가 없고, 忽然히 發病하고 忽然히 潛伏한다하였다⁷⁾.

* ** : 동국대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 1) 滑白仁 : 十四經撥揮, 台北, 施風出版社, 1981. pp.68~69.
- 2)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
- 3) 王九思 : 難經集注, 台北, 臺灣中華書局, 1986. pp.160~161.
- 4) 任應秋 : 黃帝內經類析,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258.
- 5) 王羅珍 :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3.
- 6) 李樾 : 國譯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4, p.393.

한편, 金代 竇韓卿⁸⁾의 《針經指南》에 처음 交經八穴이라 稱한 奇經八穴을 소개하였고, 明代 李樾는 《醫學入門》에서 八穴의 精義를 表現하였고, 高武⁹⁾는 《鍼灸聚英·竇氏八穴》에서 八穴의 主治를 概括하였고, 楊繼洲¹⁰⁾은 《鍼灸大成·卷五·八脈圖并治症穴》에서 八脈八會穴의 隨證取穴法을 確立하였고, 清代 吳謙¹¹⁾ 등의 《醫宗金鑒·鍼灸心法要訣》에서는 公孫·內關, 外關·臨泣, 列缺·照海, 中脈·後溪의 上下配穴法을 설명하고 있다.

最近에 이에 關한 研究로 朴¹²⁾의 攔江賦에 對한 考察, 蘇¹³⁾의 奇經八法에 關한 考察, 金¹⁵⁾의 八脈交會穴에 關한 文獻의 考察이 있으며, 王¹⁶⁾의 《奇經八

- 7) 張路玉 : 張氏醫通, 新竹, 金藏書局, 1976.
- 8) 王森 外 2人 : 鍼灸歌賦集注, 北京, 中醫藥科技出版社, 1989. p.128.
- 9) 高武 : 鍼灸聚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43~149.
- 10) 楊繼洲 : 鍼灸大成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664~693.
- 11) 吳謙 등 : 醫宗金鑒(下), 서울, 大成文化社, 1983. pp.645~670.
- 12) 朴炅南 孟雄在 : 攔江賦에 대한 考察,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1992.
- 13) 蘇在振 外 2人 : 奇經八法에 關한 考察(I), 大韓鍼灸學會誌, 1994, 제11권, 제1호, pp.9~24.
- 14) 王揭書, pp.49~72.
- 15) 金鍾大 外 1人 : 八脈交會穴에 對한 文獻의 考察, 大韓鍼灸學會誌, 1994, 第11卷, 第1號, pp.499~508.

脈校注》，施17)의 《鍼灸歌賦校釋》，王森18) 등의 《鍼灸歌賦集注》 등의 八脈交會穴歌，孫19) 등의 《鍼灸心悟》 등이 있다.

이에 論者는 歷代 鍼灸醫家들이 매우 重視하였고, 治療範圍가 넓고, 治療效果가 높으며, 特定穴의 重要的 構成部分인 八脈八會穴과 奇經八脈 및 十二正經과의 相關關係를 考察하는 것은 奇經八穴의 臨床應用에 매우 重要할 것으로 思料되어 歷代諸家의 奇經八脈에 關한 學說과 十二正經의 始動·所生病 및 正經所屬의 交經八穴의 關係를 研究한 바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資 料

1. 陽維脈, 陰維脈

‘維’字는 維持의 意味가 있으며, 諸脈을 網維하므로 維脈이라 하며, 陰·陽維脈은 還氣가 없으며, 正經의 氣血이 旺盛하면 蓄藏하고, 衰하면 灌溉하여 正經의 氣血을 調節하고 循環이 멈추지 않게 한다20).

陽維脈은 臑俞에서 手·足太陽經, 陽蹻脈, 天膠, 肩井에서 手·足少陽經, 陽白, 本神, 臨泣, 正營, 腦空, 風池에서 足少陽經, 風府, 啞門에서 督脈과 交會하여 諸

陽經을 維絡하므로 “陽維起諸陽之會” 라 하였고, 모든 陽經 즉 手·足六陽經과 督脈을 維絡하고, 衛氣가 行하는 三陽經의 表를 主關하고, 斗肩部에 交會穴이 있어 惡寒, 發熱, 頭痛의 表症이 있어 “苦寒熱” 이라 하였고, 肢體無力, 倦怠懶動하는 “溶溶不能自收持” 하는 症狀이 나타난다21).

八脈八會穴의 外關은 手少陽三焦經의 肩部的 天膠穴을 通過하여 陽維脈과 相通하는데, 外關은 手少陽三焦經의 絡穴로서 腕後 2寸에 있으며, 그 經脈은 팔꿈치를 貫通하고 팔 바깥으로 循行하여 어깨로 上行하고, 陽維脈은 諸陽이 會合하는 곳에서 起하는데 그 脈氣는 足太陽經의 金門에서 起하여 膝 바깥의 모서리로 循行하여 髀厭으로 上行하고 身體側面의 脇肋을 通過하고 어깨의 앞쪽에 이르러 手少陽三焦經의 臑會 天膠 肩井 등에서 交會하므로 外關은 陽維脈의 經氣와 相通한다22).

陰維脈은 腹哀, 大橫에서 足太陰經, 府舍, 期門에서 足太陰, 足厥陰經, 天突, 廉天에서 諸陰經을 維絡하여 “陰維起諸陰之會” 라 하였고, 모든 陰經 즉 手·足六陰經과 任脈을 有絡하며, 營氣가 行하는 三陰經의 裏를 主管하고, 胸腹部에 交會穴이 있어 心痛, 腹痛의 裏症이 있어 “苦心腹痛” 이라 하였고, 情神不寧, 魂魄失藏하는 “悵然失志” 하는 症狀이 나타난다.

八脈八會穴의 內關은 胸中에서 起하는 手厥陰心包經을 通過하여 陰維脈과 相通

16) 王羅珍：前掲書.

17) 施士生：鍼灸歌賦校釋，山西，山西科學教育出版社，1987，p.86.

18) 王森 外 2人：前掲書，p.128.

19) 孫震寰 高立山：鍼灸心悟，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5，pp.214~216.

20) 楊上善：黃帝內經太素，서울，大東文化社，1986，p.173.

21) 劉孔藤：經絡辨證概論，廈門，廈門大學出版社，1989，p.78.

22) 康鎖彬：中國鍼灸通釋·經脈腧穴學，河北，科學技術出版社，1995，p.223.

하는데, 內關穴은 手厥陰心包經의 所屬穴로서 腕後兩筋間에 位置하고 있으며, 그 經脈은 胸中에서 起하여 下行하여 手臂內側으로 이르고, 絡脈은 內關穴에서 手少陽(焦經)으로 別走하며, 陰維脈은 諸陰之交에서 起하며, 그 脈氣는 築賓에서 發하여 上行하여 入腹하고 胸膈으로 上行한다. 그러므로 胸中에서 手厥陰心包經과 交會하므로 內關穴과 陰維脈經氣와 相通한다.

2. 陽蹻脈, 陰蹻脈

“蹻”字는 擧足, 捷疾의 意味가 있으며²³⁾, 足跟에서 起하여 走行的 機要로 下肢를 움직일수 있는 關鍵이 되어 蹻脈이라 한다. 陰蹻脈은 足少陰, 陽蹻脈은 足太陽의 分支로 從下向上으로 循行하며, 《靈樞·脈度》에서 陰蹻脈은 上行하여 眼目을 濡養한다. 그러나, 陽蹻脈의 循行을 표현한 것은 없으나, 《靈樞·寒熱病》에서 足太陽이 風府에서 入眼하여 陰陽蹻脈이 交會한다.

만약, 陽蹻脈이 從日至足하여 走向陰, 陰蹻脈은 從足至目하여 走向陽한다고 推論하면, 陰陽蹻脈의 循行은 足太陽, 足少陰의 循行과 一致하는데, 이를 衛氣의 循行과 連繫하여 보면 晝間에는 陽氣가 充實하여 陽蹻脈의 脈氣가 盛하여 日張不欲睡하고, 夜間에는 陰氣가 充實하여 陰蹻脈의 脈氣가 盛하여 日閉欲睡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蹻脈의 病症은 日과 四肢에 關한 病症이며, 下肢 및 腦에 重點을 두고 있으며,

足少陽經筋은 蹻脈과 並行하여 頸部에서 左右交叉하여 左額角이 損傷하면 右下肢 癱瘓이 發生하는 것으로 보아 經筋과 蹻脈이 有關하여 癱瘓, 癩癩의 下肢弛緩, 拘急 및 運動障礙와 連繫할 수 있다.

陽蹻脈의 “陰緩而陽急”의 病症은 腰痛, 腰髖冷痺, 肩胛痛, 肩中熱, 脚屈難伸, 足脛寒, 半身癱瘓, 四肢不舉등의 腰背, 肩部, 四肢의 病變을 總稱하고 陽經의 病機를 爲主로 한다²⁴⁾.

八脈交會穴의 中脈이 陽蹻脈과 通하는데, 中脈은 足太陽膀胱經을 通過하여 陽蹻脈과 相通하는데, 中脈은 足太陽膀胱經의 腧穴이며 足外踝陷谷部位에 位置하고 陽蹻脈의 所生處이므로 《奇經八脈考》 “陽蹻者, 足太陽之別脈, 其脈起于跟中, 出于外踝足太陽中脈穴, ……” 하였다. 그러므로 中脈은 陽蹻脈의 經氣와 相通한다.

陰蹻脈의 “陰緩而陽急”의 病症은 卒疝, 小腹痛, 小便淋瀝, 陰挺등의 下腹部에 發生病變 및 大風偏枯, 半身不遂, 股軀膈內廉痛등도 範疇에 屬하며, “陰急”은 胸腹, 肢體內側에 發生하는 病症을 總稱하여 말하고 陰經의 病機를 爲主로 한다.

八脈八會穴의 照海는 足少陰腎經의 腧穴로서 足內踝 陷谷部位에 있으며 陰維脈의 所生處이며, 足少陰腎經이 股內側에서 腹으로 들어가 胸에 이르러는 것을 通하여 陰蹻脈과 相通하므로 照海는 陰蹻脈의 經氣와 相通한다.

3. 帶脈

23) 許慎 :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145.

24) 上海中醫藥大學研修部編 : 中醫博士論文集粹, 上海, 中醫藥大學出版社, 1996. p.85.

“帶”字는 紳, 束, 回, 繞의 意味가 있으며²⁵⁾, 諸脈을 總束하고 調柔하고, 腰腹을 束帶하고 一周하여 帶脈이라 하며, 腹部의 各陰陽經脈 즉 足三陰, 足陽明, 衝脈, 任脈은 모두 宗筋에서 會合하고, 各經脈의 脈氣는 氣衝部로 通하고, 帶脈의 約束을 받으며, 督脈과도 연락된다.

帶脈은 命門穴에서 起한다는 內經說과 季肋의 章門에서 起한다는 難經說이 있는데, 松은 帶脈은 第14樞의 命門과 관계가 있어 臟器의 伸縮運動을 擔當하는 帶脈과 命門과 연계된 心包經과 三焦經이 협조하여 臟器의 運動을 圓滑하게 한다하였고, 趙²⁶⁾는 帶脈의 穴은 모두 肝經과 膽經의 所屬穴이며, 帶脈과 肝, 膽經이 共助하여 人體의 모든 筋肉의 伸縮運動을 統制調節한다하였다.

帶脈의 病症은 衝, 任, 督脈 및 足三陰, 三陽과 帶脈이 연결되어 있어 損傷되면 腹部脹滿, 下肢不利, 白淫, 帶下, 腰脊痛 등의 男女의 泌尿生殖器方面 및 痿症의 病症이 帶脈과 有關하다.

八脈八會穴의 足臨泣은 足少陽膽經이 季肋을 循行하는 것을 通하여 帶脈과 相通하는데, 足臨泣은 足少陽膽經의 脈穴로서 足第四趾本節後陷한 部位에 있으며, 그 經脈은 斗側面으로 부터 어깨위로 交行하고 缺盆에서 腋으로 下行하여 胸을 거쳐 季肋을 지나 髀樞를 經過하여 股外側을 循行하여 諸四趾에 이르며, 帶脈은 季肋에서 出하여 身周圍를 一周하고 허리띠와 같이 身體를 묶고, 足少陽

膽經所屬穴인 帶脈, 五樞, 維道穴에서 帶脈과 交會하므로 足臨泣은 帶脈과 相通한다.

4. 衝脈

“衝”字는 通, 上衝의 意味가 있으며, 十二經脈의 氣血을 通輸 및 輸布하므로 衝脈이라 하였고, 腎間動氣의 所在인 胞中에서 起하여 足陽明과 宗筋에서 會合하고²⁷⁾, 足少陰과 竝行하여 收穀에서 化生된 氣血과 先天之精인 元氣는 衝脈에서 會合하므로 先後天의 氣의 通路로서 衝脈의 氣血이 旺盛할 때 上下로 運行하며, 分支는 上으로는 斗, 下로는 足, 前으로는 腹, 後로는 背, 內로는 溪谷, 外로는 肌肉으로 四通八達한다.

衝脈의 病症은 體毛, 男女의 老衰, 身體의 強弱과 關係가 있으며, 虛勞衰急, 腹裏拘急, 嘔逆, 衝疝등의 逆氣而急한 症과 有關하다²⁸⁾.

八脈八會穴의 公孫은 足太陰脾經을 通過하여 入腹하고 關元에서 會合하므로 衝脈과 通하는데, 公孫은 足太陰脾經의 絡穴로서 足大趾本節後 一寸에 있고, 別走足陽明胃脈하고 胃脈은 氣衝部에서 衝脈과 더불어 交會하여 小腹의 關元에 이르러 臍를 끼고 胸部로 上行한다. 그러므로 公孫穴은 衝脈經氣와 相通한다.

5. 任脈

25) 葉霖 : 難經正義, 上海, 科學技術出版社, 1981. p. 47.

26) 趙憲泳 : 通俗漢醫學原論, 서울, 眞玄圖書出版, 1961, p.135.

27) 張介賓 : 張氏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28) 巢元方 : 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45.

“任”字는 保, 任의 意味가 있으며, 生養의 根本으로 腹部의 依襟부위를 循行하고, 陰脈을 任維하므로 任脈이라 하며, 任脈은 會陰에서 督, 衝脈, 曲骨에서 足厥陰, 中極, 關元에서 足三陰, 下脘에서 足太陰, 長強에서 足少陰, 陰經은 모두 陰維脈을 通하여 天突, 廉天에서 交會하여 諸陰經을 任維하여 “陰脈之會”가 된다.

任脈의 病症은 循行部位와 合致하며, 男女의 生殖器 및 肛門, 尿道, 咽喉의 疾患이므로 “內結七疝”하였고, 任脈, 衝脈은 胞中에서 起하여 衝脈은 血海, 任脈은 胞胎를 主關하므로서 生殖機能 및 婦人의 性週期와 關係가 있다.

八脈八會穴의 列缺은 手太陰肺經이 喉嚨을 循行하는 것을 通하여 任脈과 相通하는데, 列缺穴은 手太陰肺經의 絡穴로서 腕上 1.5寸에 位置하고 있으며, 그 經脈은 中焦에서 起하여 아래로 大腸에 絡하고 다시 위로 循行하여 橫膈膜 통과하여 肺에 屬하고 肺系(喉嚨과 相關關係部位)로 부터 腋으로 橫出하여 팔내측 모서리를 循行하여 列缺에 이르고, 任脈은 中極 아래부분에서 起하여 腹 안쪽을 循行하여 關元으로 上行하고 咽喉에 이르므로 列缺과 任脈의 經氣는 相通한다.

6. 督脈

“督”字는 監督, 察視의 意味가 있으며, 脊背의 正中을 循環하며, 陽經을 督率하므로 督脈이라 하고, 會陰, 鬲交에서 任脈, 長強에서 足少陰, 水溝에서 手, 足陽明, 神庭에서 足太陽, 陽明, 百會, 腦戶, 道陶陶에서 足太陽, 大椎에서 手, 足三陽經,

諸陽經은 陽維脈을 通하여 風府, 啞門에서 督脈, 風門에서 足太陽과 交會하므로 “陽脈之會”하였다.

督脈의 病症은 脊柱를 循行하고 腦에 屬하므로서 脊, 腦에 關한 病이며, 腦는 髓海로서 督脈이 腎과 相通하고 腎은 腦와 通하므로 腦, 督脈, 腎은 相互連繫된 脊強, 癩癩, 髓海不足해 나타나는 腦轉, 耳鳴, 脛疝 등의 症狀, 遺尿, 不孕, 小腹氣上衝心 등의 衝脈과 竝行하여 나타나는 症狀가 있다.

八脈八會穴의 後谿는 手太陽小腸經이 어깨를 交行하여 大椎에서 會合하는 것을 通하여 督脈과 相通하는데, 後谿는 手太陽小腸經의 所屬穴로서 手小指本節 外側本節後陷沒部位에 있으며, 그 經脈은 팔 모서리 바깥쪽으로 上行하여 어깨를 交行하여 大椎에서 督脈과 會合하므로 後谿는 督脈의 經氣와 相通한다.

III. 本論

1. 奇經八脈의 病症과 十二正經의 始動病, 所生病과의 關係

- 1) 足太陰·衝脈의 病症과 公孫, 手厥陰·陰維脈의 病症과 內關

「原文」

藥家有問病發藥者, 刺家問病施鍼, 亦其事也. 有如病人氣逆而裏急, 此奇經衝脈爲病也. 病人舌本強痛, 食嘔不下, 胃脘痛, 腹脹善噦, 得後與氣則快然如衰, 身體皆重, 不能動搖, 煩心, 心下急痛, 便澀痲泄, 水

閉<1>黃疸, 不能臥, 強立股膝內腫, 足大趾不用, 此足太陰脾經收病也. 病人洒洒然振寒, 善伸數欠, 眼黑, 病至則惡人與火, 聞木聲則惕然而驚, 心欲動, 獨閉戶牖而處, 深則欲登高而歌, 棄衣而走, 賁響腹脹, 狂症溫淫, 汗出軌衄, 口渴唇①, 頸腫, 喉痺, 大腹水腫, 膝臑腫痛, 膺乳氣街股伏兔足行②外廉足跗上皆痛, 足中趾不用. 氣盛則身以前皆熱, 消穀善飢, 尿色黃; 氣不足則身以前皆寒慄, 寒則脹滿, 此足陽明胃經收病也. 病人悵然失志, 善心痛, 奇經陰維爲病也. 病人手心熱, 臂肘攣急, 腋腫, 深則胸脇支滿, 心中澹澹大動, 面赤目黃, 喜笑不休, 煩心, 心痛, 此手厥陰心主收病也. 此五經收病, 不拘六氣七情, 揆之八法, 宜刺公孫, 內關. 以公孫二穴, 足太陰所發, 通乎衝脈, 絡足陽明. 內關二穴, 手厥陰所發, 通乎陰維. 四穴並刺, 鍼氣一行之後, 三焦快然, 凡五經之病, 無不除治. 吾嘗例之瀉心<2>, 涼膈<3>, 大小陷胸, 調胃承氣諸方者, 以驗之者素<4>也.

「解釋」

藥物治療 醫師는 질병에 대해 묻고 나서 藥을 쓰고 처방을 만드는 것이며, 鍼灸醫生은 질병에 대해서 묻고 나서 鍼을 쓰는 것인데, 이는 모두 한가지인 셈이다. 病人이 氣上逆, 腹裏拘急한 것은 모두 病邪가 衝脈으로 들어와 氣를 상충시킨 결과이다. 病人이 舌本強痛, 消食不下, 胃脘疼痛, 腹脹善噎氣하며 大便이나 방귀를 끼게 되면 비교적 상쾌해지는기는 하지만 全身의 기운이 가라앉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心中煩亂, 心下膈引作痛, 大便稀薄 혹은 下痢하고 水閉于內, 大小便不通, 혹은 一身面日이 모두 누렇게 되고 不能平臥, 股

膝內側腫脹, 足大趾不能活動하게 되는 모든 것은 足太陰脾經에 병이 들어온 결과이다. 病人이 周身寒戰, 허리와 다리를 뻗기 좋아하고, 자주 하품하며 이마의 색깔이 어둡고 발병시 惡見人火, 聞木聲則驚惕, 心跳不安, 獨閉戶牖而處, 甚則欲登高而歌, 棄衣而走, 배가 부르고 腸鳴音이 나며 膝臑腫痛, 胸側와 乳部 및 伏兔와 大腿 外側, 足趾까지疼痛하고 足中趾가 活動不利하며 氣盛則 全身發熱, 消穀善飢, 小便色黃; 經氣不足 周身寒慄, 身寒而腕腹脹滿 하는 모든 것은 足陽明胃에 병이 든 것이다. 病人이 실의에 빠지고 정신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胸部가 항상 疼痛하며 心中이 驚惶不安하고 面色赤紅, 眼目發黃, 喜笑不休, 心煩, 心痛하는 모든 것은 病邪가 手厥陰心包經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 다섯 經脈의 질병발생의 원인들은 六淫, 七情으로써 이 때에도 八脈交會穴을 다스려야 하는 데 公孫과 內關을 刺針한다. 公孫은 足太陰脾經의 穴으로써 衝脈을 貫通하고 足陽明胃經에 연락한다. 內關穴은 手厥陰心包經의 穴位로 陰維脈과 貫通한다. 이상의 네 개혈을 모두 자극하면 자침후 上中下 三焦의 經氣가 모두 풀리게 되어 다섯 경락의 질병을 모두 치료하게 된다. 내가 일찍이 瀉心湯, 涼膈散, 大·小陷胸湯과 調胃升氣湯으로 치료하였던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校勘」

① : 이런 글자는 없다. 《靈樞. 經脈篇》은 “脣”이라고 한다.

② 足行: 《靈樞. 經脈篇》에서는 “胛”으로 되어있다.

「注釋」

- <1> 水閉：小便不通症을 가리킨다.
- <2> 瀉心：瀉心湯. 黃連, 黃芩, 大黃의 약물조성. 瀉火解毒力이 있다. 熱盛迫血한 嘔吐, 衄血, 目赤腫痛, 口瘡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 <3> 涼膈：涼膈散. 梔子, 黃芩, 薄荷, 大黃, 芒硝, 蓮翹, 甘草등의 약물조성. 清熱解毒, 瀉火通使力이 있다. 高熱頭痛, 面赤唇焦, 咽喉腫痛, 口舌生瘡, 便秘溲短赤등을 치료한다.
- <4> 素：오는 방향, 한 방향. 《史記. 陳涉世家》：“吳廣素愛人, 士卒多爲用者”라고 하였다.

2) 足少陽·帶脈의 病症과 臨泣, 手少陽·陽維脈의 病症과 外關

「原文」

有如病人腰腹縱，溶溶<1>如囊水之狀，若坐水中，奇經帶脈受病也。病人口苦耳聾，脇痛不能轉側，寒熱往來，善太息，面微塵，體無膏澤，頭痛，耳前後痛，目銳皆痛，缺盆中腫痛，腋下垂，馬刀<2>俠癭，汗出振寒，胸脇肋髀膝外至脛絕骨，外踝前及體節皆痛，足小趾次趾不用，此足少陽膽經受病也。病人溶溶不能自收持，爲病苦寒熱，奇經陽維爲病也。病人耳聾，渾渾惺惺，噎腫喉痹，汗出，目銳皆痛，脇痛，耳後肩臑肘臂外皆痛，手小指次指不用，此手少陽三焦經收病也。此四經收病，不拘六氣雜揉，協邪爲邪，揆之八法，宜刺臨泣，外關。以臨泣二穴，足少陽所發，通乎帶脈。外關二穴，手少陽所發，通乎陽維。四穴病者，

表裏皆和。四經之所屬者，宜無留疾。吾嘗例之三化<3>，雙解<4>，大小柴胡<5>，通聖<6>，溫膽<7>諸方，信非繆<8>矣。

「解釋」

病人의 허리와 배둘레에 물이 들어 있는 듯한 水腫이 보이게 되면 帶脈의 병이 든 것이다. 病人이 口苦, 耳聾, 脇肋部疼痛으로 몸을 돌리지 못하고, 寒熱往來, 歎息, 面色灰暗, 皮不澤, 頭痛, 耳前後疼痛, 外眼角痛, 缺盆腫痛, 腋下腫瘡, 大汗出, 週身汗戰, 胸脇肋髀膝外에서 絕骨前外側部까지의 疼痛, 足小趾의 不能活動 등의 모두는 病사가 足少陽膽經으로 들어온 것이다. 病人이 汗出, 寒熱하는 것은 陽維脈이 병든 것이다. 病人이 耳聾, 眩氣症, 咽喉腫痛, 多汗, 外眼角疼痛, 面頰疼痛, 耳後, 肩, 肘, 臂의 疼痛, 無名指 손가락의 활동제한은 모두 手少陽三焦經에 병이 들어온 것이다. 이 네가지 경맥이 六淫邪가 雜至하여 병이 생기면 八脈 交會穴을 잘 살펴서 臨泣, 外關을 刺針한다. 臨泣二穴은 足少陽膽經의 穴位로 帶脈과 통하고, 外關은 手少陽三焦經으로 陽維脈과 통한다. 네 穴은 같이 쓰면 表裏를 疏通시키고 네 經에 생긴 諸病을 잘 고칠수 있게 된다. 내가 일찍이 三化湯, 雙解散, 大·小柴胡湯, 防風通聖散, 溫膽湯의 方劑로 치료한 경우와 같은 치료효과가 있다.

「注釋」

- <1> 溶溶：넓고 큰 모습. 《楚辭. 九命. 愍命》：“心溶溶其不可量兮”. 이는 허리에 힘이 없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 <2> 馬刀：病名. 《靈樞. 癰疽篇》에

나온다. 痲癰이 생긴후 구멍이 뚫려서 생긴다. 모양은 길고 質은 딱딱하다. 귀뒤에서 缺盆까지 따라서 내려가거나 혹은 어깨위에서 옆구리를 타고 내려가기도 한다.

<3> 三化 : 三化湯. 厚朴, 大黃, 枳實, 羌活등의 약물조성. 中風二便不通을 치료한다.

<4> 雙解 : 雙解散. 滑石, 甘草, 防風, 川芎, 當歸, 白芍藥, 大黃, 薄荷, 麻黃, 蓮翹, 芒硝, 石膏, 黃芩, 桔梗, 荊芥, 白朮, 梔子, 豆豉, 葱白등의 약물조성. 外感風火暑濕과 內傷飲食勞倦등증을 치료한다.

<5> 大小柴胡 : 大, 小柴胡湯. 大柴胡湯은 柴胡, 枳實, 黃芩, 白芍藥, 半夏, 大黃, 生薑, 大棗등의 약물조성. 少陽熱邪가 아직 제거되지 않거나 陽明裏熱이 응성한 증상에 이용한다. 小柴胡湯은 柴胡, 黃芩, 人蔘, 半夏, 炙甘草, 生薑, 大棗 등의 약물조성. 少陽證 (寒熱往來, 胸脇苦滿, 口苦咽乾, 目眩, 默默不欲飲食等) 을 치료한다.

<6> 通聖 : 防風通聖散

<7> 溫膽 : 溫膽湯. 陳皮, 半夏, 枳實, 竹茹, 生薑, 甘草등의 약물조성. 清膽和胃, 除痰止嘔力이 있다. 虛煩不眠, 胸悶, 口苦, 口涎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8> 繆 : “繆”자와 같다. 착오의 뜻이다. 《莊子·盜跖》 : “多辭繆說, 不耕而食, 不織而衣”

3) 足太陽·陽蹻脈의 病症과 申脈, 手太陽·督脈의 病症과

後溪

「原文」

有如病人脊強反折, 奇經督脈爲病也. 病人頭如破, 目似脫, 項如拔, 背如僵, 腰似折, 髀不可以曲, 臑如結, 臑如裂, 足小趾不用, 目黃泣出, 衄血身熱, 足太陽膀胱經受病也. 病人陰緩而陽急, 奇經陽蹻爲病也. 病人噎痛頰腫, 不可回顧, 肩似拔, 臑似折, 耳聾目黃, 頰腫, 頸項肩臑肘臂後廉皆痛, 手小指不用, 手太陽小腸受病也. 此四經收病, 不問風寒暑濕燥火, 雜揉相協, 揆之八法, 宜刺後溪, 申脈, 以後溪二穴, 手太陽所發, 通乎督脈; 申脈二穴, 足太陽所發, 通乎陽蹻. 四穴并刺, 上下交通. 四經之所過者, 無不去之疾. 吾嘗例之於麻黃<1>, 桂枝<2>, 葛根<3>, 青龍<4>, 信不虛矣.

「解釋」

어떤 사람이 脊強反折하게 되면 督脈에 병사가 들어있는 것이다. 病人이 目似脫, 項如拔, 背如僵, 腰似絕, 髀不可而曲, 臑如結, 臑如裂, 足小趾不能活動, 鞏膜이 黃色을 띄고 눈물이 흐르고, 身熱鼻出血하게 되는 것은 足太陽 膀胱經의 病증이다. 病人이 陰蹻脈이 緩하고 陽蹻脈이 急한 것은 陽蹻脈에 병이 든 것이다. 病人의 咽喉痛, 頰腫, 頸項強直不能回顧, 肩似拔, 臂痛如斷, 耳聾不聞, 兩目鞏膜發黃, 面頰腫瘡, 經臂肘外側疼痛, 手小指不能活動의 모두는 手太陽小腸의 病증이다. 이 네 經絡의 病변은 風, 寒, 暑, 濕, 燥, 火가 서로 얽혀서 雜至함으로써 생기는 데 靈龜 八法을 가지고 치료한다. 鍼은 後谿와 申脈을 刺針한다. 後谿穴은 手太陽小腸經에 있으며 督脈과 통하고 申脈은

足太陽膀胱經에 있으며 陽蹻脈과 통한다. 이 네 穴은 上下連接貫通하여 네 經絡이 지나는 곳의 疾病을 제거한다. 내가 일찍이 麻黃湯, 桂枝湯, 葛根湯, 大·小青龍湯으로 질병을 치료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본다.

「注釋」

<1> 麻黃：麻黃湯. 麻黃, 桂枝, 杏仁, 炙甘草등의 약물로 조성되었다. 解表發汗, 宜肺平喘力이 있다. 外感風寒 表實證인 發熱惡寒, 頭身痛, 無汗, 脈浮緊등을 치료한다.

<2> 桂枝：桂枝湯. 桂枝, 白芍藥, 炙甘草, 生薑, 大棗등의 약물로 조성되어있다. 解肌發表, 調和營衛力이 있다. 外感風寒 表虛證인 發熱, 汗出, 惡風, 鼻鳴乾嘔, 脈浮緩등을 치료한다.

<3> 葛根：葛根湯. 葛根, 麻黃, 桂枝, 白芍藥, 炙甘草, 生薑, 大棗등의 약물조성. 外感風寒, 發熱惡寒, 頭痛, 項背強痛등 症을 치료한다.

<4> 青龍：大, 小青龍湯

4) 手太陰·任脈의 病症과 列缺, 足少陰·陰蹻脈의 病症과 照海

「原文」

有如是子內結七疝, 女子帶下瘕聚, 皆奇經任脈爲病也. 病人肺作脹滿, 彭彭而喘咳. 缺盆中痛, 深則交兩手而脊, 上氣喘喝, 煩心, 胸滿, 膈臂內前廉痛. 氣盛有餘則肩背痛, 風寒, 汗出, 中風, 小便數而欠; 氣虛者則肩背痛寒, 少氣不足而息, 溺色黃①

變, 卒遺失②, 此手太陰肺經受病也. 病人陽緩而陰急, 奇經陰蹻爲病也. 病人飢不欲食, 面如漆紫③, 咳吐有血④, 喝喝而喘, 坐而欲起, 目眈眈如無所見, 心如懸若饑, 氣不足則善恐, 心惕惕如人將捕之, 口苦⑤舌乾咽腫, 上氣噎痛, 煩心, 心痛, 黃疸, 腸癖, 脊股內後廉痛, 痿厥嗜臥, 足下熱而痛, 此足少陰受病也. 凡此四經受病, 不拘外感諸邪, 內傷六欲, 揆之八法, 宜刺列缺, 照海. 以列缺二穴, 手太陰所發, 通於任脈. 照海二穴, 足少陰所發, 通於陰蹻. 四穴病者, 鍼氣一行之後, 四經所歷之處, 病無不去, 氣無不和. 吾嘗例三黃<1>, 二母<2>, 犀<3>, 薄<4>, 甘桔<5>諸方者, 以驗之者非一日也.

「解釋」

男子에겐 內結七疝 (衝, 厥, 狐, 卒, 瘕, 瘕, 癰)이 있고, 女子에겐 瘕瘕積聚가 있는데 이 모두는 任脈의 병변이다. 病人이 肺腑脹滿, 喘咳不休, 缺盆中疼痛, 喘咳過極하게 되면 病人이 兩手交叉하여 胸部를 누르게 되고 視物模糊不清, 呼吸氣逆, 喝喝而喘, 心煩, 胸滿, 臂肘內側疼痛, 掌中發熱, 邪氣亢盛及肩臂痛, 新感風寒, 汗出, 中風, 小便頻數하게 된다. 氣虛則肩背寒痛, 呼吸困難, 小便色黃하게 되는 모든 것은 病邪가 手太陰肺經으로 들어 온 까닭이다. 病人의 陽氣가 和緩하고 陰氣가 促急한 것은 모두 陰蹻脈의 病變이다. 病人이 飢餓상태에서도 음식 생각을 안하고 面色晦黯無華, 咳吐帶血, 喘息有聲, 不能平臥, 兩目無光, 心懸若饑한 것은 神氣가 부족하여 두려움이 발생하는 것이고, 마음이 불안하여 누군가에게 쫓기는 기분이거나, 口苦, 舌乾, 咽喉腫痛, 心煩, 心痛, 黃疸, 大便泄瀉, 脊柱後

面疼痛, 胃壁無力, 嗜臥, 足下發熱而疼痛한 것은 足少陰腎經의 病變이다. 대개 이 네 개의 經絡은 外感이나 內傷에 따라 굳이 구별하지 않고 八法을 이용하여 列缺, 照海를 刺針한다. 列缺穴은 手太陰肺經의 穴으로써 任脈에 통하고 照海穴은 足少陰腎經의 穴位로서 陰蹻脈에 통한다. 四穴을 모두 刺針하면 經脈氣運이 통과하는 路線의 病邪가 모두 제거되고 氣血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내가 일찍이 三黃瀉心湯, 二母寧嗽湯, 犀角地黃湯, 薄荷나 甘桔湯등으로 치료한 것과 같다.

「校勘」

- ① 黃 : 《靈樞. 經脈篇》에는 이 글자가 없다.
- ② 卒遺失 : 《靈樞. 經脈篇》에는 이 글자가 없다.
- ③ 紫 : 《靈樞. 經脈篇》 “紫”로 되어 있다.
- ④ 咳吐有血 : 《靈樞. 經脈篇》에는 “咳唾則有血”로 되어 있다.
- ⑤ 口苦 : 《靈樞. 經脈篇》에는 “口熱”로 되어 있다.

「注釋」

- <1> 三黃 : 三黃瀉心湯
- <2> 二母 : 二母寧嗽湯. 知母, 浙貝母, 黃芩, 梔子, 石膏, 桑白皮, 茯苓, 瓜蒌仁, 陳皮, 枳實, 五味子, 甘草, 生薑 등의 藥物조성. 痰熱壅盛한 咳嗽痰喘, 胸悶氣急, 久嗽不止, 咽痛聲啞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 <3> 犀 : 犀角地黃湯. 犀角, 生地黃, 牡丹皮, 白芍藥 등의 藥物조성. 清熱解毒, 涼血散瘀의 효력이 있다. 外

感熱證, 邪入心包한 高熱昏迷, 吐衄便血, 發癩, 舌質乾結등에 이용된다.

- <4> 薄 : 薄荷. 性味辛涼, 入肺肝二經. 外感風熱, 目赤腫痛, 喉痺, 麻疹透發不暢등을 치료한다.

2. 八脈八會穴의 臨床應用

1) 公孫, 內關

- (1) 公孫二穴, 足太陰脾經穴也, 通于衝脈. 內關二穴, 此二穴是手厥陰心包絡穴也, 四穴通于陰維脈. 四經會合循行之處, 在胃心胸之間, 故主治胃與心, 胸之病也

公孫 內關: 公孫은 脾의 絡穴이며, 足太陰脾는 三陰의 脈을 總領하고, 衝脈은 奇經八脈中の 重要한 하나이다. 脾는 後天營衛之氣를 主管하며, 衝脈은 足少陰足陽明과 相關關係가 있고, 任脈, 督脈과 一元三岐하며, 腎은 後天의 根本으로 任督이 陰陽을 總領하므로 衝脈은 十二經의 海가 된다. 內關은 心包絡의 絡穴이며, 手厥陰心包는 全身血脈을 統領하며, 陰維脈은 諸陰經을 維絡하여 諸陰이 交會하는 곳에서 起하며, 三陰과 交叉하고 더불어 任脈에 同歸한다. 血脈은 有形의 體로서 陰에 屬하므로 陰維脈과 心包絡은 通한다.

公孫, 內關은 脾, 心包, 衝脈, 陰維의 循行路線中 相合하는 四經의 主治證인 心, 胸, 胃의 疾患을 治療할 수 있음을 말한다.

2) 臨泣, 外關

(2) 臨泣二穴, 是足少陽膽經穴也, 通于帶脈. 外關二穴, 此二穴是手少陽三焦經穴也, 四穴通于陽維脈. 四經會合連絡之處, 在于目銳眦, 耳後, 頰, 頸, 肩之間, 故主治目銳眦, 耳後, 頰, 頸, 肩之病也.

臨泣 外關: 臨泣은 膽經의 絡하며 足少陽膽은 帶脈과 相通하고 少陽은 樞經으로 能히 上下左右로 轉樞하고, 帶脈은 少陽에서 起하여 圍腰하여 速帶하므로 帶脈은 諸脈을 約束하여 經氣가 通暢하도록 調節作用을 한다. 外關은 三焦經의 絡穴이며 手少陽三焦經은 水穀氣血의 道路로서 上下表裏 陽經의 樞紐(중심)이며, 陽維脈은 諸陽의 脈을 維系하므로 手少陽三焦經과 陽維脈은 相通한다.

外關, 臨泣은 膽, 三焦, 帶脈, 陽維의 循行路線中 相合하는 四經의 病症에 二穴을 相配하여 目外眦, 耳, 頰, 頸, 肩等の 五個部位의 疾患을 治療할 수 있음을 말한다.

3) 後谿 申脈

(3) 後溪二穴, 是手太陽小腸經穴也, 通于督脈. 申脈二穴, 此二穴是太陽膀胱經穴也, 四穴通于陽蹻脈. 四經會合別絡之處, 在于目內眦, 頸, 項, 耳, 肩, 膊, 小腸, 膀胱之間, 故主治目內眦, 頸, 項, 耳, 肩, 膊, 小腸, 膀胱之病也.

後谿 申脈: 後谿는 小腸經의 所屬이며 小腸經은 血府의 經이고 分別清濁 하고

小腸은 太陽經에 屬하고 陽이 最多하고, 督脈은 統率陽氣 統率眞元하므로 二經은 相通한다. 申脈은 膀胱經의 所屬穴이며 足太陽膀胱은 洲都의 職責이 있으므로 津液을

藏하고 氣化하여 能出한다. 陽蹻는 足太陽의 別脈으로 陽經의 蹻健의 脈이므로 二經은 相通한다.

申脈, 後溪는 膀胱, 督脈, 陽蹻脈의 循行路線中 相合하는 四經의 病症을 二穴을 相配하여 目內眦, 頸項, 耳, 肩膊, 小腸, 膀胱等 部位의 主治症이 있음을 말한다.

4) 列缺 照海

(4) 列缺二穴, 是手太陰肺經穴也, 通于任脈. 照海二穴, 此二穴是足少陰腎經穴也, 四穴通于陰蹻脈. 四經會合系絡之處, 在于肺系, 咽喉, 胸膈之間, 故主治肺系, 咽喉, 胸膈之病也

列缺 照海: 列缺은 肺經의 絡穴로서 手太陰肺經은 統乎諸氣하고 三陰을 統率하므로 任脈은 陰脈의 海이므로 二經은 通한다. 照海는 腎經의 所屬穴이며 腎은 先天의 本으로서 藏經의 場所이며 主納藏精하고, 陰蹻는 足少陰의 別脈으로 陰經의 蹻健의 脈이므로 二經은 相通한다.

列缺, 照海는 肺, 腎, 任脈, 陰蹻脈의 循行路線中 四經의 相合하는 肺系, 咽喉, 胸膈의 三個部位의 治療效能이 있음을 말한다.

所屬經	八穴	通八脈	會合部位
足太陰	公孫	陰蹻	胃, 心, 胸
手厥陰	內關	陰維	
手少陽	外關	陽維	目外眦, 頰, 頸,
足少陽	臨泣	帶脈	耳後, 肩
手太陽	後谿	督脈	目內眦, 項, 耳,
足太陽	中脈	陽蹻	肩胛
手太陰	列缺	任脈	胸, 肺, 膈,
足少陰	照海	衝脈	喉嚨

표 1. 八脈交會穴

IV. 考察

奇經의 존재에 대해 《內經》과 《難經》에서는 經絡系統의 중요한 일부로 생각하여 十二正經의 經氣에 대해 調節과 畜溢作用을 하는 것으로 여겼다. 《內經》에서는 奇經에 대해 散發적으로 논술되어 있는데²⁹⁾³⁰⁾ 《難經》에 이르면 “奇經八脈”의 名稱과 더불어 作用, 循行, 病候 등에 대해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金元代의 竇漢卿은 《鍼經指南·流注八穴序》에서 奇經八脈八會穴의 위치와 取穴法 및 主治症 213例를 들었는데 이때 相應하는 穴位를 2개씩 4개로 묶었다. 또한 《鍼經指南·直言補瀉手法》에서는 해당 穴位의 補瀉法에 대해 나와 있으며, 補瀉法은 차차 變해가면서 《鍼灸大成》에 이르면 完결된 鍼刺手法이 정해지게 된다. 다. 31)32)33)

이후 明清代의 徐鳳과 楊繼洲 등에 의해 이 奇經을 이용한 治法의 가지수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고, 何若愚 등의 子午流注針法과 靈龜八法, 飛騰八法의 鍼法과 연계가 되면서 奇經의 時間的인 면과 空間的인 면도 같이 부각되게 되었다.

奇經의 八脈交會八穴은 竇漢卿의 《鍼經指南·流注八穴序》에서 “交經八穴者, 鍼道之要也. 然不知孰氏之所述. 但序云: 乃少室隱者之所傳也, 近代往往用之彌驗. 予少時嘗得其本于山人宋子華, 以此術行于河淮間四十一年, 起危篤, 患隨手應者, 豈勝數哉! . . . ” 라고 하여 해당 奇經의 八脈八會穴이 왜 그렇게 정의되었는지의 상관성에 대한 초기의 기록을 알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八脈交會穴은 十二經脈의 輸穴인데 四肢의 踝腕關節上下에 分布되어 있으며, 所屬經脈의 八穴을 通하여 奇經八脈과 通하는데, 八穴은 踝腕關節에 있어 奇經八脈과 循環關係가 없는데 어떻게 八穴이 奇經八脈과 通하는가에 대하여 金元代에 오게 되면서 奇經流注中 別絡의 개념이 들면서 해당 穴位까지 유추되고 있는 路線을 말하게 된다. 帶脈의 경우 別絡이 膽經의 臨泣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衝脈의 別絡은 脾經의 公孫까지 가며, 中脈과 照海穴은 각각의 해당 奇經의 起始部인 것을 볼 수 있으며, 徐는 《鍼灸大全》에서 各各의 八脈交會八穴의 설명의 末尾에 “通某脈”이라는 식으로 연결을 지어 놓았고, 康³⁴⁾은 이

29) 王琦 外: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258.

30) 楊維傑: 黃帝內經經絡圖解, 台聯國風出版社, 臺聯, 民國65年.

31) 王克正 主編: 古今鍼灸治驗精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0, p.35.

32) 魏稼 主編: 各家鍼灸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p.178.

33) 張吉 主編: 各家鍼灸醫籍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29.

理由は“經交穴通”으로 八脈交會穴은 竇氏의 “交經八穴”의 名에서 意味를 찾아 解釋해 하였고, 王은 상관성을 따져보면 主治症이 동일한 때문에 연관성을 잡았으며, 八穴이 모두 肘膝關節以下에 있어서 常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公孫穴을 예로 들 경우, 《鍼經指南》에는 27 個의 主治症이 있고, 《鍼灸大全》에는 36 症으로 追加되었으며, 《鍼灸大成》에는 여기서 다시 5 種이 추가되었다.

明代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八法者, 奇經八穴爲要, 乃十二經之大會也.” 또 “周身三百六十穴通于手足六十六穴, 六十六穴又通于八穴.” 하였는데 이는 八穴의 精義를 表現한 것으로 생각되며, 八脈交會穴을 醫家들은 매우 重視하였고 現在 臨床的으로 八脈交會穴의 應用範圍가 매우 넓고 治療效果도 좋다. 그러므로 八脈交會穴은 特定穴의 重要한 構成部分이다.

公孫은 脾經의 絡穴로 “人絡腸胃” 하기 때문에 主治症은 脾, 胃經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며, 大小腸은 다음으로 나타난다. 心은 胃 다음으로 많다. 따라서 公孫은 心證에도 많이 쓰인다. 內關은 “上係于心包” 하는 心包經의 絡穴이므로 心包의 病症에 제일 많이 쓰이게 된다. 그리고 公孫 다음으로 胃病에 많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臨泣은 膽經의 俞穴이므로 膽經病症에 가장 많이 쓰이고 膀胱病症에 申脈과 거의 비슷한 빈도로 이용이 된다. 外關은 三焦經의 絡穴로 “主心症, 合心主” 하게 되며 公孫과 같이 三焦病證에 같은 빈도

로 많이 이용된다. 腎病症에는 申脈 다음으로 많이 이용된다.

後谿는 小腸經의 俞穴인데 肝經病症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膀胱病症에는 申脈 다음으로 많이 이용된다. 申脈은 膀胱經에 속하며 동시에 陽蹻脈의 起始部에 위치한다. 主治症은 각 穴位와 비교할 때 주로 腎經病症에 많이 이용되며, 膀胱經症에도 臨泣과 같은 빈도로 이용된다.

列缺은 肺經의 絡穴이며 “別走陽明” 하여, 主治症은 大腸經과 脾經病症에 公孫과 더불어 가장 많다. 照海는 腎經이며 동시에 陰蹻脈의 시작부위이다. 主治症은 다른 穴과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으며 腎經病症에는 申脈, 外關다음으로 많고, 肝經病症에는 後谿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상에서, 奇經八脈八會穴의 主治症은 해당 正經의 是動病과 해당 奇經의 病症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奇經八脈을 主要分布部位나 主要病症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衝脈과 陰維脈, 帶脈과 陽維脈, 督脈과 陽蹻脈, 任脈과 陰蹻脈이 상관있게 나타난다.

명대의 吳崑은 奇經八脈과 十二正經間의 主治의 同一點을 위주로 相關있는 穴位를 중심으로 연결성을 찾게 되었고, 奇經間에는 主治症의 내용과 더불어 主治症의 發顯部位가 어디냐에 따라서 신체의 上下, 前後를 기준으로 2개씩 연결한 것으로 알 수 있다.

太陽經病證의 是動, 所生病들은 經絡上으로 手足太陽經, 督脈, 陽蹻脈이 상관이 있었으며, 약물치료방들은 모두 傷寒論의 太陽經表症에 이용되는 發散處方들이 많았다. 鍼灸治療穴들은 申脈과 後谿로서 手足太陽經, 督脈, 陽蹻脈의 4개 經絡

34) 康鎖彬 : 前掲書, pp.275~276.

에 이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陽明裏熱證의 是動, 所生病은 經絡上으로 足太陰經, 足陽明經, 手厥陰經, 衝脈, 陰維脈등과 상관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傷寒論의 陽明裏熱證에 이용되는 攻下處方들이 많았다. 鍼灸治療穴들은 公孫, 內關으로서 足太陰經, 足陽明經, 手厥陰經, 衝脈, 陰維脈의 5개 經絡에 이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少陽半表半裏證의 是動, 所生病은 經絡上으로 手足少陽經, 帶脈, 陽維脈등과 상관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傷寒論의 少陽半表半裏證에 이용되는 和解處方들이 많았다. 鍼灸治療穴들은 外關, 臨泣으로서 手足少陽經, 帶脈, 陽維脈의 4개 經絡에 이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少陰厥陰證의 是動, 所生病은 經絡上으로 足少陰經, 手太陰經, 任脈, 陰蹻脈등과 상관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傷寒論의 少陰厥陰發熱證에 이용되는 清熱滋陰處方들이 많았다. 鍼灸治療穴들은 列缺, 照海로서 足少陰經, 手太陰經, 任脈, 陰蹻脈의 4개 經絡에 이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傷寒論의 六經病證과 八脈交會穴의 治療方法이 相通하는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結論

歷代 鍼灸醫家들이 매우 重視하였고, 治療範圍가 넓고, 治療效果가 높으며, 特定穴의 重要한 構成部分인 八脈八會穴과 奇經八脈 및 十二正經과의 相關關係를 考察하는 것은 奇經八穴의 臨床應用에 매우 重要할 것으로 史料되어 歷代諸家

의 奇經八脈에 關한 學說과 十二正經의 始動·所生病 및 正經所屬의 交經八穴의 關係를 研究한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奇經八脈은 十二正經 氣運의 過不及을 조절하는 經脈으로 奇經과 正經間에는 主治症이 같은 것 끼리 연결을 할 수 있고 奇經八脈 八脈交會穴은 그 연관되는 正經上에 있게 되며, 奇經八脈間에는 主治症이 어디냐에 따라 들 씩 연관을 지을 수 있다. 즉, 主治症의 聯關性은 經絡的으로 太陽經, 少陽經, 陽明經, 太陰經, 少陰經으로 나뉘며, 主治症의 신체부위는 背腰腿部, 側腹胸部, 前腹胸部, 肺系·咽喉部등으로 나뉜다.
2. 奇經八脈의 爲病證은 주로 經絡 流注部位의 疼痛, 發熱이며 十二正經의 爲病症은 是動病이 爲主가 되며 所生病 즉, 臟腑疾患에 대해서는 別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奇經八脈八會穴의 主治範圍는 주로 經絡에 있는 邪氣의 除去가 目的이다.
 - 1) 後谿, 申脈의 穴位로 치료가능한 범위의 질병은 太陽經의 背部, 腰部, 大腿後部등의 질환이며 藥物治療는 주로 太陽表症 치료에 쓰이는 麻黃湯, 桂枝湯 및 裏證에 쓰이는 葛根湯, 小青龍湯, 大青龍湯이며 이들 모두가 邪氣의 發汗療法에 해당된다.
 - 2) 外關, 臨泣의 穴位로 치료가능한 범위의 질병은 少陽經의 側胸部, 側腰部, 上下肢側外部등의 질환이며 藥物治療

는 주로 少陽病證 치료에 쓰이는 三化湯, 大柴胡湯, 小柴胡湯, 防風通聖散, 溫膽湯 등이며 이들 모두가 邪氣의 和解療法에 해당된다.

- 3) 公孫, 內關의 穴位로 치료가능한 범위의 疾病은 太陰, 陽明經의 腹部의 心, 胸, 胃部位의 질환이며 藥物治療는 주로 陽明熱證 및 太陰燥證 치료에 쓰이는 半夏瀉心湯, 生薑瀉心湯, 附子瀉心湯, 涼膈散, 大陷胸湯, 小陷胸湯, 調胃升氣湯 등이며 이들 모두가 邪氣의 清熱降火療法에 해당된다.
- 4) 列缺, 照海의 穴位로 치료가능한 범위의 疾病은 肺系, 咽喉部位의 인체 正面 中央의 질환이며 藥物治療는 주로 腎經, 胃經熱등으로 肺陰의 부족이 나타날 때쓰이는 三黃瀉心湯, 二母散, 犀角地黄湯, 甘桔湯 등이며 이들 모두가 邪氣의 清熱瀉肺火療法에 해당된다.

VI. 參考文獻

1. 金鍾大 外 1人 : 八脈交會穴에 對한 文獻的考察, 大韓鍼灸學會誌, 1994, 第11卷, 第1號,
2. 朴吳南 孟雄在 : 蘭江賦에 대한 考察,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1992.
3. 蘇在振 外 2人 : 奇經八法에 關한 考察 (I), 大韓鍼灸學會誌, 1994, 제11권, 제1호
4. 蘇在振 外 2人 : 奇經八法에 關한 考察 (II), 大韓鍼灸學會誌, 1995, 제12권, 제1호,
5.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173.
6. 吳昆 : 針方六集校釋, 서울, 醫聖堂, 1993.
7. 吳謙 등 : 醫宗金鑑, 서울, 大成文化社, 1983.
8. 王琦 外 :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9. 李梴 : 國譯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4.
10. 張介賓 : 張氏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11. 趙憲泳 : 通俗漢醫學原論, 서울, 眞玄圖書出版, 1961.
12. 許慎 :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13.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14. 康鎖彬 : 中國鍼灸通釋·經脈腧穴學, 河北, 科學技術出版社, 1995.
15. 高武 : 鍼灸聚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16. 上海中醫藥大學研修部編 : 中醫博士論文集粹, 上海, 中醫藥大學出版部, 1996.
17. 葉霖 : 難經正義, 上海, 科學技術出版社, 1981.
18. 巢元方 : 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9. 孫震寰 高立山 : 鍼灸心悟,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20. 施士生 : 鍼灸歌賦校釋, 山西, 山西科學教育出版社, 1987.
21. 楊繼洲 : 鍼灸大成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22. 楊維傑 : 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國風出版社, 臺聯, 民國65年.

23. 王九思：難經集注，台北，臺灣中華書局，1986.
24. 王克正 主編：古今鍼灸治驗精華，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0.
25. 王羅珍：奇經八脈考校注，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90.
26. 王森 外 2人：鍼灸歌賦集注，北京，中醫藥科技出版社，1989.
27. 魏稼 主編：各家鍼灸學說，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93.
28. 劉孔藤：經絡辨證概論，廈門，廈門大學出版社，1989.
29. 任應秋：黃帝內經類析，呼和浩特，內蒙古人民出版社，1986.
30. 張吉 主編：各家鍼灸醫籍選，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4.
31. 張路玉：張氏醫通，新竹，金藏書局，1976.
32. 滑白仁：十四經撥揮，台北，施風出版社，1981.